



성장 둔화세 지속... 비용절감 등 긴축 경영

주요 제품 특허만료...신약 생산성 하락

제약산업은 처방약 시장의 침체, 유럽 약가 압박, 강력한 제네릭 경쟁, 한정된 최종 단계 임상실험 기폭제 등 주요 이슈의 영향은 지속되고 있다.

향후 5년 간 신제품 출시와 특허만료 사이에 중요한 불규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이런 요인은 향후 5년 간 글로벌 제약시장의 성장을 둔화시킬 전망이다.

리피토, 플라빅스, 렉사프로, 자이프렉사 등 주요 매출 원천인 약물들은 향후 5년 이내에 제네릭 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리피토와 자이프렉사 등 주요 약물이 특허만료되기 때문에 2011년에 연 300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놓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약물의 제네릭 영향은 2012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동시에 제네릭으로 매출 하락은 신제품 론칭으로 충분히 보상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장 침체로 일부 제약사들은 감원 등 비용절감을 하고 있다.

- M&A 게임

M&A는 2010년 제약산업에서 유행했다. 이미 대부분의 빅 파마들은 주요 제품의 제네릭 경쟁에 직면해 있어 매출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M&A와 인 라이선싱을 추진하고 있다.

제약산업에서 인수 기류는 2011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존슨앤존슨(J&J)은 네덜란드 바이오파마 크루셀 NV를 인수해 백신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했다. 또 의료가 메이커 신테스를 합병했다.

화이자도 진통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킹 파마를 흡수합병했다. 머크는 전문 제약사인 인스피르 파마를 인수해 안과시장을 강화했다. 사노피는 바이오 기업인 셀젠을 인수해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제네릭 제약사들도 인수 게임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았다. 세계 최대 제네릭 약물 메이커인 테바는 바이오텍인 세팔론, 왓슨파마는 유럽에서 입지 확대를 위해 제네릭 메이커인 스페시파(Specifar) 파마 인수했다. 전문 헬스케어 솔루션사인 엔도 파마도 골반 의료기 메이커인 AMS(American Medical Systems)를 인수했다. 이밖에도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암과 염증 질환 치료제 개발 중심의 바이오텍인 갈리스토가 파마를 인수하는 등 M&A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또 파이프라인 후보의 개발을 위해 인라이센싱과 협력도 늘어나고 있다. 소규모 바이오 기업은 인라이센싱과 협력을 위한 계임을 하고 있다.

이런 기업의 대부분은 자금 부담을 겪고 있어 생존과 유망한 파이프라인 후보의 개발을 지속하기 어렵게 한다. 이에 따라 제약사와 제휴를 맺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 신흥시장

제약사들은 신흥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화이자, 머크, GSK, 릴리, 사노피, 노바티스 등 빅파마들은 인도, 중국, 브라질은 물론 다른 신흥 시장에서 입지 확대를 찾고 있다.

최근까지 대부분의 상업화 노력은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시장이 중심이었다. 신흥시장은 중요성을 느끼고 확고하게 얻어가고 있고 일부 기업은 이 지역으로 초점을 변경하고 있다. 신흥시장은 약물 수요의 증가로 강력한 매출을 보이고

있다.

헬스케어를 위한 정부 정책, 새로운 환자 수, 제네릭 사용의 증가 등 일부 요인들은 수요 드라이버에 도움이 되고 있다. 신흥시장에서 성장은 2010~15년 제약산업의 특허홍수 동안 기본 사업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IMS헬스에 따르면 신흥시장의 약물 소비는 2010년 1510억달러에서 향후 5년간 2850~3150억달러로 2배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헬스케어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정부의 노력과 함께 강력한 경제 성장이 드라이버이다.

브랜드 약물 시장은 향후 5년 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IMS에 따르면 브랜드 약물 시장은 2005년 70%에서 2010년 64%, 2015년 53%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감소는 주요 브랜드의 특허만료가 동력이다.

2015년 브랜드 약물 지출은 2010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측했다.

- 기회와 약점

제약산업은 약가 인하 압력과 제네릭 등 직면한 도전은 지속될 것이지만 신흥시장 성장과 신약 승인은 충격을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 FDA는 신약 승인에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일부 후보 약물은 최종 승인 취득이 연기되고 있다. _ MP저널